



역사에 침윤된 불도수행의 도량

《한국의 가람》 펴낸 홍윤식씨

백제의 고찰인 미륵사와 금산사는 당시 민중들뿐 아니라 국가 경영의 철학적 기초가 된 미륵사상의 면모를 읽을 수 있게 하는 절이다. 의상국사가 건립한 화엄종찰로 알려진 부석사의 무량수전에는 의외로 '아미타불'이 봉안돼 있는데, 저자는 이를 통해 신라시대의 화엄신앙이 정토교적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밝히기도 한다. 송광사는 수심처(修心處)인 '수선사(修禪社)'를 대응전 상단에 높은 석축을 쌓고 별도의 공간으로 구획해놓은 가람배치가 독특하다. 우리나라 선종의 중심사찰로서 송광사의 사상적 배경을 잘 보여주는 예다.

"우리 문화유산의 대부분이 사찰입니다. 종교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 사찰의 구조와 역사, 그 속에 깃든 사상을 제대로 아는 일은 곧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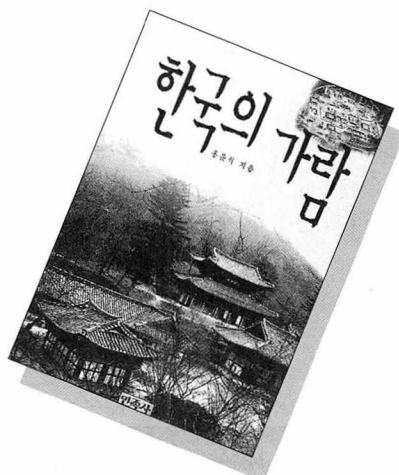
홍교수는 최근 들어 우리 사찰문화에 대한 특강 요청이 많아지는 것이 반갑다. 강의에 대한 반응도 썩 좋다. 《한국의 가람》을 펴내게 된 데는 그런 이유도 크게, 앞으로도 이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홍교수는 한국불교문화연구의 총결산이 될 《한국불교문화예술론》을 집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 박남정 기자

"가람은 불교문화의 종합체이자 집결지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깊숙이 침윤된 불교문화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작업을 해온 홍윤식(63,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 교수가 최근 《한국의 가람》(민족사)을 펴냈다. '가람(伽藍)'이란 범어의 '승가람마'의 줄임말로 불도수행의 도량인 사찰을 통칭하는 말이다. 사찰이나 사원도 다 같은 뜻이지만 이들이 주로 승려들이 부처를 모시고 신앙행위를 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중심을 이루는데 비해 가람은 전각이나 탑, 입지조건, 불상, 불화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개념이다.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찰 16곳을 선정해 그곳의 형성배경과 창건동기, 건물의 배치, 각 가람에 모셔진 불상이나 탱화와 변천과정을 살피고 있는 이 책은 거칠게 말하면 절 안내서다. 그러나 그 내용은 기왕에 나와 있는 관련서들과는 사뭇 다르다. 이 분야 책들 대부분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람'이 지니는 미학적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단순한 여행안내서에 머무르고 있는데 비해, 이 책은 종합적인 공간으로서의 '가람'의 역사와 신앙적 특성, 현재적 의미를 두루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조금씩 모습이 다르게 보일 뿐이던 각 사찰의 전각 구조나 배치, 불상과 탱화들이 각기 어떤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아울러 그것이 당대의 정치·사회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불교의 성격과 문화는 어떻게 변천해왔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



억눌린 자아와 세계의 화해

《그여자, 입구에서 가만히 뒤돌아보네》 펴낸 김정란씨

사랑이다.

"나는 이제 쓸쓸해 하지 않는다 내 마음 속에서 천 개의 태양과 천 개의 달이 뜨고 지는 걸 나는 단 하나 사랑의 끈만 잡고 놓지 않는다 세계여 난 너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나로 하여 이 사랑에 지치게 하지 말라"고 시집을 통해 외친다.

"세계는 시가 찾아옵니다. 시간을 따로 들일 필요 없이 이미지가 떠오르면 바로 써요. 때로는 쓰고나면 전혀 다른 이미지가 되어 있기도 하지요. 시는 가장 순결한 언어예요. 지배담론에 오염되지 않고 검열관이 없는 장르입니다. 그 열망이 나로 하여금 시를 붙들게 합니다."

이 시집에서 여자들은 뒷모습으로 등장하거나, 얼굴이 지워진 형상으로 나타난다. 악마성이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금기시하는 타자성의 집결체이다. 김교수는 이처럼 기이하면서도 불길한 여성 이미지를 통해 참혹한 상처를 견디면서 세계와 화해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의미화되지 않는 속살거림'으로 자신과의 싸움, 세계와의 싸움에서 버터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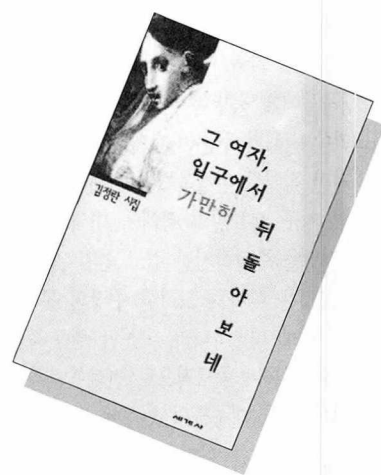
영혼의 고통으로 괴로울지언정 외면적인 김교수는 더없이 활기차고 바쁘게 지낸다. 요즘엔 《본느프와 산문집》과 미셀 투르니에의 책을 번역중이다. 울림에도 설 짝이 없을 것 같다. — 마정미 기자

교수이자 문학평론가이며 《람세스》의 번역가이기도 한 김정란교수(45, 상지대 불문학과)는 그렇게 다면적인 얼굴을 가지고서도 어느 한편 기울어짐 없이 인정받는 사람이다. 또한나의 얼굴인 시인으로서의 위상도 독보적이다. 기왕에 시를 보는 눈으로 보면 불편스러운 정도로 쉽게 분석되지 않는 독특한 시세계, 전우주적인 여성주의가 발현된 시세계를 지닌 시인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성적 자아로서의 김교수가 완벽주의자라면 거기에서 침잠된 거대한 무의식, 영혼의 심연은 아픈 시를 지어낸다

세번째 시집 《그여자, 입구에서 가만히 뒤돌아보네》(세계사)는 예전 시집이 그렇듯 독특한 문법으로 여성주의 혹은 여성성, 그리고 영혼과 영성을 드러낸 책이다. 정상적인 구문의 파괴, 파격적 행간이, 파편화된 이미지의 나열로 이어진 해체시인 이 시들에는 형용사가 거의 없고 말줄임표로 독자의 공간을 열어놓았다. 시집 전체가 극적인 구조로 구성되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제외하고 5개의 부로 나뉜 시들은 여성의 자아찾기 여정을 차례대로 그려 보인다.

"내 영혼은 오랫동안 고통스러웠어요. 치받치는 강렬한 내면의 자아의 말을 누르고 사회에서 필요한 라이선스를 따기 위해 이를 악물고 살았지요. 그동안 짓눌러 두었던 그 여자의 말이 근래들어 더욱 생생해집니다."

김교수는 자아와 그 자아가 몸담고 있는 세계의 근원을 찾아 괴롭게 유랑한다. '나와 너' '여성과 남성' '자아와 우주'의 통합이 그의 지향점이라면 그 과정이 바로





무거운 삶을 가볍게 만드는 시

《꿈속에서 기어나오고 싶지 않은 날》
펴낸 김철순씨

지난 95년에 동양일보가 주최한 제1회 지용신인문학상은 기성과 신인작가 모두에게 개방된 각축의 장이었다. 사람들의 관심어린 시선이 모아진 것은 당연한 일. 그런데 이 상을 수상한 김철순씨(43, 시인)는 뜻밖에도 평범한 주부였다. 엄감생심이란 말을 들을까봐 가까운 사람에게도 응모 사실을 숨겼다는 김씨가 2년만에 첫 시집을 냈다.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합니다. 책을 내면 누구나 그런가요? 처음 겪는 일이라 얼떨떨하면서도 흐뭇합니다.”

지용문학상을 받았을 때도 TV며 신문, 잡지에서 다루어 인터뷰를 해 갔지만 시집을 읽고 보내오는 독자들의 반응만큼 그를 설레게 하지는 않았다. 수필가 반숙자씨는 그의 시가 “피부로 느껴지는 시어”로 찍어진 “누구나 아는 시”면서 “진부하지 않고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감상을 보내왔다.

“제 흥에 겨워 쓴 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살아온 경험을 평범한 시어로 쓴 그의 시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삶의 굵이굵이에 북병처럼 숨어 있는 크고 작은 좌절을 맞은 사람이라면 그의 시에서 위로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종학력 중졸, 자포자기하듯 했던 열아홉의 결혼, 몇 번이나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던 삶, 그것과의 대결에서 지지 않으려 했던 의지는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서 나온다.

“... 산을 오르고서야/비로소 내려다 보이는 걸어온 길/새 뒤의 다른 사람들도

힘겹게 오르는 것이 보인다/힘들게 오를 때는/나만 힘든 길인줄 알았는데》(《산을 오르며》중에서) 너무 성실하고 지당한 말씀이라는 게 불만이라면 불만일까,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시를 엮어내는 솜씨는 타고났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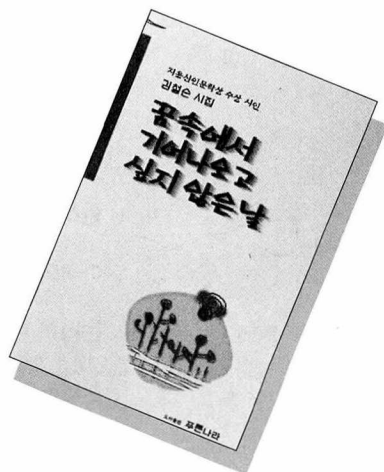
“시골에서 자라 책은 구경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라고는 교과서에서 본 것이 고작이지요.”

하지만 그는 88년 어느날 충청도 주부 백일장 공고를 보고 가슴이 뛰었다. 무작정 나갔고 주제를 보자마자 시가 써어졌다. 차상으로 입상을 하고, 전국 주부백일장에 나갔다. 시를 쓰는 것이 즐겁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시로만 보였다. 어떤 때는 일주일에도 80편의 시를 쓴 적도 있어 스스로 미친 것이 아닐까, 고민을 하기도 했다. 시가 대관절 그에게 무엇이길래.

김철순씨의 시에는 유난히 ‘가볍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 부유하는 것들의 가벼움/그것을 알고부터 내 몸 가벼워져/나비보다 더 가벼운 삶을/살 수 있을 것 같아요/나뭇잎 한 장 내 속에 들어와서》(《나뭇잎 한 장》중에서)

시는 그에게 무거운 삶을 가볍게 만드는 ‘나뭇잎 한 장’과 같은 것이다.

— 이현주 기자



출판터미널이 수금 간소화, 수금 비용 최소화, 신용거래 정착으로 본격 마케팅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저희 출판터미널은 서점과 출판사간의 마케팅 활성화, 업무 효율화, 신용 거래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 첫 발걸음으로 복잡한 수금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출판계의 고속터미널, 출판터미널을 이용하시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출판터미널 이용시 출판사의 이점

1. 수금 간소화

- 팩스 한통으로 모든 거래 서점의 수금이 출판사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어음의 경우 출판사가 지정한 날에 일괄 인계합니다.

2. 수금 비용 최소화

- 200,000만원으로 경부·호남선 지역 서점의 수금이 모두 해결됩니다.
(강원지역 제외, 수도권지역의 경우엔 옵션으로 추가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출판터미널 대행료 산출 근거

구 분	거래 서점 50개 이하	거래 서점 50개 초과시
지방(경부·호남선)	200,000원	거래 서점 수×4,000원 (200,000원/50개 서점)
수도권지역	수금일수 × 5,000원 (거래 서점수와 상관없이 서점의 지불일수에 따라 요금이 결정됩니다.)	

3. 신용거래 정착

- 마케팅 실적 및 도서 판매 실적에 따라 지불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습니다.

4. 마케팅 활성화

- 수금에 쫓기던 시간을 본격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방 출장은 마케팅 출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 출판터미널 이용시 서점의 이점

1. 지불 간소화

- 모든 거래 출판사를 상대로 지불해야 했던 불편함이 저희 출판터미널 한 곳에, 저희 회원사의 지불 총액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편리함으로 바뀝니다.

2. 업무 효율성 제고

- 서점에서는 별도의 비용 지출 없이 복잡한 지불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서점 제반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3. 매출 증진 효과

- 복잡한 수금 절차 때문에 빼기던 시간을 출판사와 서점간의 정보 교류 활성화,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서점의 매출액이 증대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곧 출판터미널의 회원사가 되십시오. 출판고속도로를 마음껏 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판터미널의 수금 절차 및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은 출판사에서 저희 출판터미널에 연락하십시오.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집 기간 : 1997년 8월 31일까지
문의 및 담당 : 이병덕 과장

한국출판터미널

서울시 중구 예관동 시사B/D 706호
전화:265-0286(대) Fax:263-6979